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세션 19, 구원, 이끌림, 부름, 부활, 생명으로의 부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구원, 이끌림, 부름, 부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서의 가르침, 즉 요한 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두 군데, 아마도 세
군데, 같은 장, 여섯 장에 있는 두 군데에서 사람들이 아버지에 의해 아들
에게 이끌리는 곳입니다. 사실, 그 중 하나에서 아들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흥미진진합니다.

네, 허, 흥미롭네요. 어쨌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당신과 당신의 왕국을 위해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해 주십시오
,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은 선거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그림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진법적 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영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여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원론 적 조화가 있습니다 . 물론, 저는 삼위일체적 조화를 믿습니다.
요한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상관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 후에, 글쎄요, 그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35절에서 시작하는 카이아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평행법에 의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식사를 즐기는 것,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영적 만족을 가져온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려 함이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카이아즘은 36절에서 시작된다.

예수를 보고 36을 믿지 않는 것은 A입니다.

소수는 40에서 예수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36,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고 나서 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39절입니다.

그것은 그가 내게 준 모든 것을 말해. 그것은 B와 B 프라임일 거야.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C, 37절. C 프라임, 39, 나는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D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고, 그게 D이고, D prime은,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그래서

A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이 경우에는 믿지 않는 것, 36입니다.

B,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고, 그들은 아들에게 온다.

C, 아들은 그들을 보존합니다, 37절.

D,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D 프라임, 아버지의 뜻.

C 프라임, 아들은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음.

B 프라임,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A 프라임, 보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 구원의 이러한 측면들 가운데, 큰 그림은 아버지 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요한의 주제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아들에게로 이 끄니다 .

이것은 더 이상 카이아즘이 아닙니다. 체계적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고 , 그는 그들을 아들에게로 이끌고, 그들은 아들에게 오고, 그들은 아들을 믿습니다. 아들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들은 그들을 지키신다. 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선택과 추첨은 부름과 유사하다.

믿음, 보존, 부활. 이것들이 일들이고, 다시 말해서, 영은 그냥 제외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일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일들입니다.

더 큰 성경적 관점과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요한의, 특히 바울의 선택은 항상 아버지의 일이었지만 요한복음 15, 16, 19장을 제외하고는 영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는 것은 바울의 부르심이며, 그것도 아버지의 일입니다.

믿는 것은 죄인들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지만, 사람들, 인간들은 믿는다. 바울에 대한 믿음, 요한에 대한 믿음.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입양의 영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로마서 8:15, 16, 전자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보존은 삼위일체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입니다. 이 맥락에서 요한복음 6 장에서는 아들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며, 양을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에서 성령은 인장이고 삼위일체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 성경의 절반 구절은 아버지를 말하고 절반은 아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 끄니다 .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옵니다 . 아들은 그들을 지켜줍니다.

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명히 이원론적 조화가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적 조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신학은 성경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좁은 의미에서 성령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끄시는 사람들, 아들을 믿는 사람들, 아들이 지키는 사람들, 아들이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9장, 30장을 언급하듯이, 그것을 황금 사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원론적 조화, 체계적 삼위일체적 조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 일으켜집니다.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37절.

저는 그런 잘못된 참조를 할 때 싫어요.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44절에서 확실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 저는 앞 구절에서 그것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35절에서 평행법을 통해 분명히 보여 줍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끈다 . 나는 바울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고, 사람들을 아들에게 부르고, 그들이 아들에게 와서 그를 믿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택하고,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성령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의 경우에도 부르는 분은 실제로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바울 안에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택함받은 자들을 끌어들이시고, 그들은 옵니다. 그들은 아들을 믿습니다 . 요한이 구원에서 아버지 와 아들의 일을 먼저 조정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

그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9장, 30장에서 바울이 보존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볼 때와 마찬가지로, 배후의 모습을 보거나 신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는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주는 것에서 일으키시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고, 끌어내는 것, 오는 것, 지키는 것을 빼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의 요점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37절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참조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
요한은 여러 번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가 그의 백성 안에서 신비롭게 일하여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32는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인 그림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끅니다. 요한복음 12:32, 요한의
겔세마네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서 저를 구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목적을 위해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늘에서 온 음성이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죄의 주요 표현은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31.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32.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여 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니?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아직 조금 남았다.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라.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6:44에서 아버지 께 돌렸습니다.

아들 에게 귀속됩니다 .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만들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효과적인 끌어내거나 부르심으로 이해한다면, 6장에서 명백히 그런 경우인데, 주어지고 끌어내진 자들은 와서 보존되고 일으켜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보편주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그것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면, 당신은 절대적 보편주의,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 복음과 맞지 않거나, 죄인들에게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비효과적인 추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맥락에서 제안할 것이고,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가진 다른 작가들이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거나 제가 생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인들, 몇몇 그리스인들이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다른 양들과 함께,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가야바의 예언과 함께, 11장에서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다고 예상하는 곳 입니다. 여기서 몇몇 그리스인들이 축제에 예배하러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며 예수에게 청중을 요청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즉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12시가 끝나고 13시가 시작되고 그의 시간이 왔다고 말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 땅에 떨어진 밀알의 은유가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 열매 맺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죽이고 열매 맺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25절의 끝이 실제로 미래적이거나 아직은 영원한 삶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미 그것을 요약했습니다. 요한의 겐세마네, 하늘에서 온 음성,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함, 그리고 예수가 아들의 십자가 처형에서 악마가 패배하고, 그가 들어올려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함.

여기서는 그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제안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요한복음 6장과 잘 조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 예외 없이 모두가 아니라 구별 없이 모두라는 뜻이다. 즉, 그리스인과 이방인을 포함한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신학적인 것보다 성경적인 것을 더 원하고, 본문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어하지만, 저는 그림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구별은 적어도 적용을 통해 인종이나 민족 이상의 것입니다. 모든 언어,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장소, 세계의 모든 위치, 모든 국가 등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구원이 성부가 신성한 과정의 일부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성부와 성자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 사냥과 낚시와 같은 단어로,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 자신에

대해 물고기를 끌어들이고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분명한 것은 구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하여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오래 설명하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생명을 주는 구절입니다. 아들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절름발이였던 사람에게 방금 생명을 주셨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그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18절).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봅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9절이고, 신성한 지식, 신성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이,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은 아들을 거둬나는 인간으로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을 때, 그들은 아버지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 부활을 경험하고, 죽은 자의 영역에서 산 자의 영역으로 옮겨간다고 전파합니다.

내 말을 듣고, 24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곧 영적인 부활 곧 거둬남이니라. 그러므로 이 부활은 미래의 문자적 부활이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영적 부활입니다.

그러나 28절과 29절에서 우리는 그것의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이 없고,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 또는 원한다면 믿는 자들을 대신한 육체적, 영적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지금이니라. 듣는 자들은 지금 살아서 거둬나고 거둬날 것이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본래적으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게시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한 속성이며, 신성한 소유이며,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의 일부이며, 신성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아들에게 그 자신 안에, 그의 육신의 상태에서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한 심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자이고, 그는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놀라지 말고, 인자의 말씀에서 영적 부활이 지금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환상적인 주장인가.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간다. 새로운 삶은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비유된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무덤에서 일으킬 것은 아들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29절,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조를 주목하십시오.

한 시간이 오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25, 사람들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부활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28, 지금은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란히, 여기에는 영적 부활, 육체적 부활, 거듭남,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미 부활, 거듭남, 부활, 아직 무덤이나 무덤에서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9와 30, 30은, 죄송합니다, 29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 그런데, 28, 부활에서, 때로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음성을 내는 사람이고, 때로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체계론자들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인격은 분리될 수 없으며, 죽은 자의 부활은 삼위일체, 특히 성부와 성자의 역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성령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암시합니다. 암시 그 이상입니다.

나는 그것을 철회할 것이다. 영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로마서 8:11.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이 있다면, 한 구절에 삼위일체가 있는 것이지, 한 절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아버지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 곧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멸성체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여기서 부활자이시지만, 그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해 부활하십니다. 로마서 8:11은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그는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멸의 죽어가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연속성이 있지만, 그는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삼위일체,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들은 아들의 음성에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후자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악스러운 행위에 대해 정죄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매우 공의로운 일입니다.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죄의 근거, 근거는 예수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완전히 설명하자면, 그것은 그들의 죄악스러운 생각, 말, 행동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큰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11절,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도망갔고, 그들을 위한 자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문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존재는 경외롭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들, 창세기 1.1은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의인화, 그의 완전한 경외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죽은 자들이 크고 작은 자들로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행위에 근거합니다. Herman Ridderbos, Paul, 그리고 그의 신학 개요를 비교해보세요. 그의 장 제목 중 하나는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행위는 우리에게 매우 살아있는 단어이고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에르가 이고, 행위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녀는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하데스는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그들은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근거가 주어진 모든 심판 구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행위이고, 때로는 말, 생각, 때로는 생각, 때로는 말인데, 저는 이것을 더 큰 범주의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Greg Beal이 그의 방대하고 놀라운 계시 주석에서 보여주듯이, 신성한 주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생명책은 새 예루살렘의 천상 기록부이며, 따라서 예정론적 모티프입니다. 그것은 다른 하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항상 행위에 근거하지만, 몇몇 곳에서는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경의 최후의 심판 구절인데, 거기에 예정론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에 근거한 심판을 무효화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것은 자격을 부여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5:29로 돌아갑니다.

인자의 음성에 사람들이 나온다.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문제 없다.

그들은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들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갑니다. 어려운 부분은 그들이 와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이고 심판은 행위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여 주겠다. 전자는 불가능하고, 제임스는 약간 비꼬고 있다.

당신은 악마들이 또한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 죽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들 없이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나타나는 행위는 그들이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근거이다. 그것은 이 구절을 포함하여 많은 구절의 해석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존 머레이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이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함에 협력하지만, 분명히 칭의에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 없는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열매인 행위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선행의 저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그 선행을 하시고, 그분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서, 글썄, 나는 훌륭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영을 주시고, 저 안에서 경건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많은 선행을 하는 성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와 같습니다.

주님, 언제 감옥에 있는 당신을 봤어요? 언제 당신을 방문했어요? 언제 이걸 했어요? 무엇으로 도왔나요? 주님은 기록해요. 정말 놀랍네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들은 정말 이런 선행을 합니다. 공덕이 있는 방식으로요?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은 새롭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근처, 그분의 선한 기쁨을 위해 원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구원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일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인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원하고 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는 좋은 생각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원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신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것들은 우리의 공로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진 육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

아니요, 그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을 위해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을 주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것으로 일하셨는데, 그 아들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거듭거듭,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실 분입니다.

완전하게 말하자면, 아버지는 많은 구절에서 부활자입니다. 저는 그것이 50-50,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6:39,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40,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4
4,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가 그를, 맞이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나와 내 속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구원은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의 영적 부활이 아니다.
요한복음 5:24, 25.

그것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영혼의 불멸에 대한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적
개념은 기독교의 최고선, 즉 최선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갈망합니다.

신은 처음에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따라서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심지어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죽은 상태도 놀라운 일이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19-21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몸으로 아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활하여 우리의 필멸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핵심 단어인
듯합니다. 우리의 현재 필멸의 몸이 강력하고, 불멸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영으로 능력을 받은 몸으로 변화하여 다가올 시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대할 만한 구원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을 고려하고
이미와 아직 아닌 것에 대한 마지막 일의 모든 문제를 관점에 맞춰 볼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구원, 이끌림, 부름, 부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